

소감문

교과목명	스타트업초청강연	담당교수명	박종용	강연일자	2018.09.11.화
강연제목	4차 산업혁명과 창업트렌드			강연자	박종용
학과 및 학년	일본학과 1학년	학번	2018049807	성명	심유빈

스타트업초청강연의 첫 강의 주였다. 담당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과 창업트렌드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고, 문재인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럼 4차산업이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까지 사회시간에 배웠던 산업혁명은 1차 동력, 2차 자동화, 3차 디지털 이었다. 디지털까지만 해도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또다른 혁명이 생겨났다니 생각치도 못할 빠름이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강의에 의하면 “아직 전문가들도 말이 많다” 라고 한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뜻이 확립되지 않았다는것 같다. 하지만 요즘 산업추세와 발전되어가고있는 기술들을 통해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란 AI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자동화 데이터를 이용한 무인화를 이룩하는 기술이 아닐까 싶다. 산업에서 무인화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서는 2035년까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830만개가 감소하지만 오히려 970만개가 증가하면서 약 14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거라고 예측하고있다. 이중에서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엇인가하면 바로 서비스이다. 이 얘기를 듣고 공감하였으나, 뒤에 나온 잡코리아의 미래에 사라질직업 도표의 1위가 번역가인것은 공감하지못하였다. 번역가의 번역도 생각해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번역가에 대해 한 번역가가 쓴 책을 읽게되었는데, 저자는 단순히 외국어를 번역하는것은 그 어떤 AI를 통한 번역기로도 가능하지만 문학과 같은 AI에게는 없는 사람다움을 번역하는것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기전에 출국장을 찾으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중, 길이나 기차시설정보를 안내해주는 로봇이 하나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이리저리 버튼을 눌러보았는데, 내가 알고싶은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었지만, 안내데스크의 안내원과 는 다르게 딱딱하단 느낌이 들었다. 모르는것이 있을때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준다. 또한 형식적이지않은 색다른 질문

도 안내원의 경험 또는 생각으로 대답해줄수도있다. 하지만 로봇의 경우 입력되어있는 질문에대한 대답만 해줄 수 있으니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 사람이 사람이라서 가능한것도 있을것이고, 이는 AI로는 대체하기 힘든 것이다.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에게서 오는 정다움과 경험은 사람만이 느끼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